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8강 '이집트 문명 속 피라미드의 진실 조명'

유성환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역사의 가치는 현 세대 평가서 나온다”

이집트 문명 유물·장례문화 등 소개
정확한 기록 없는 문명 후대 상상 개입
“현존하는 고대 유물 보존·기록 중요”

“고대 문명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8강좌가 지난 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창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유성환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집트 문명 속 피라미드의 진실 조명’이라는 주제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기술과 미라·오벨리스크 등 장례 문화까지 짝딱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 속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유 교수는 먼저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원우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그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근처에 대부분 분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찾아볼 수 없다”며 “가장 유명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천500년 건설된 것으로 높이 147m, 밑면 230m, 무게는 무려 5천900만톤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닌 왕권과 신앙의 상징이다. 피라미드 내부의 복잡한 통로와 ‘송풍구’로 알려진 구조물은 별자리와 정렬돼 고대 문명의 천문 지식과 신화가 어떻게 건축에 반영됐는지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라미드는 점점 줄어들고 지하 무덤 형태로 변했는데, 투탕카멘의 무덤은 재위가 길지 않아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수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8강좌가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창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유성환 서울대 교수가 ‘이집트 문명 속 피라미드의 진실 조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점의 유물과 보석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거대한 고대 건축물을 두고 ‘노예들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등 다양한 얘기가 존재하지만, 그 당시 농민들이 동원돼 지어졌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집트의 문명은 크게 고왕국 시대·중왕국 시대·신왕국 시대로 나뉘며, 부흥, 쇠락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으며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이후 로마제국의 변방이 됐다.
유 교수는 “이집트는 기원전 3천년 이미 통일 국가를 형성했으며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예술과 건축, 문화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

다”며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웠던 오벨리스크 기념비는 멸망 이후 로마에서 대다수가 제거되어 이집트에는 3-4개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라의 제작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이집트인이 보존한 미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이다”며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죽은 사람의 뇌를 먼저 제거한 뒤 내장을 빼고 양뿔물에 70일 정도 절여 미라를 만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현재와 이집트 문명을 비교

하며 “고대 이집트도, 마야도, 바빌론도 스스로를 말하지 못한 채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잊혀진 문명은 정확한 기록이 없는 만큼 후대의 추측과 상상이 개입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굴암, 다보탑도 1-2천년 후에 관리를 소홀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어 제대로 보존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며 “잊혀진 문명은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선조들이 간직한 가치의 절반도 되지 않을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신안 자은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봉사

신안군 자은면 복지공동체와 대한적십자사 자은면협의회는 “최근 구영마을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봉사자들은 집 안팎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약 5톤을 정리·수거하며 어르신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박남근 복지공동체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배려와 나눔이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순금 자은면 적십자봉사회장은 “몸은 힘들었지만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은면 복지공동체는 올해 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37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총 4천166만 원 규모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동신대 응급구조학과 ‘반려동물 안전교육 봉사’

동신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최근 나주소방서와 함께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주제로 학습 나눔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혁신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응급구조학과 봉사 동아리 ‘응급슬쩍’ 학생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농식품기술평가원, 빛나라어린이집, 전남경찰청 기동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응급 상황 대처법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반려동물 기초 안전 지식 등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세훈 동신대 응급구조학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공 분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담양 봉산면지사協, 취약계층 도마 수선 사업

담양군 봉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마 수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도마 수선은 봉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유산마을 공평이공방의 재능기부를 통해 오래되고 낡은 도마를 수거한 후 수선해 총 5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주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창우 공평이공방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현·진철 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는 정창우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여수경찰, 기초질서 확립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여수경찰서는 9일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위반 예방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일상 속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병행하며 시민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거리의 불법 광고물 제거, 야간 취객 밀집 지역 순찰 강화, 공공장소 소란 행위 계도, 쓰레기 투기지역 집중 홍보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 민원이 제기된 건물 인근 지역에서는 경찰과 민간이 협력해 순찰·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민·관·경 합동 자율 계도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또한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반 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한 제보 기능도 운영 중이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기초질서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시민과 함께 질서 있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과 실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멕시코 몬테레이 방문 특강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가 오는 14-18일 멕시코 몬테레이를 방문, 특강과 기차 공장 견학을 한다.
9일 김 교수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 주의 공식 투자진흥기관(한국의 코트라 기능)인 인베스트 몬테레이(Invest Monterrey)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몬테레이는 멕시코 제3의 도시이자 미국 텍사스주에 접한 북부지역의 산업과 경제 중심지로 한국 회사가 2천여개 넘으며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과 대한솔루션, 성우하이텍 등 협력사, LG 전자 등 큰 공장이 430여개에 이른다.
인베스트 몬테레이는 주지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고 주정부, 주정부 의회, 공공기관과 기업, 학계 등이 관련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협회로 투자 자문 및 수출입 컨설팅, 지역 파트너 연결 및 협력, 공급처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교수는 오는 16일 ‘한국경제와 멕시코(The Korean Economy and Mexico)’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대기자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조의금 1천만원 장학금 기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윤진호(사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천만원을 인제대 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조문과 함께 해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자 이뤄졌다.
윤 실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한 장학금이 전남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기탁금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장은 “애도의 뜻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진호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금 1천만원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오상은 전남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기탁

전남대학교는 “최근 오상은(사진 왼쪽)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미래간호교육관 설립 및 실습실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이 담겼다.
오 교수는 전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과학연구소장, 평의원회 및 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아동간호학회 제23대 회장 등을 역임했고 제8대 간호대학장을 맡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학장 재임 시절에는 졸업예정자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합격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교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학생 지도에 힘쓴 오 교수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은 교수는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기자